

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9. 5. 12 ~ 2019. 5. 17

출장지: 프랑스 파리

출장자: 이진희, 정기성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프랑스 파리

2. 출장기간: 2019. 5. 12 ~ 2019. 5. 17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진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기성	

4. 출장목적

- 2019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및 산하 작업반 회의 토론을 위한 발표 자료 준비, 회의 참석, 한국 대표단 자문 및 외교부 전문 작성
 - 제41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위원회 산하 작업반(도시 및 지역(농촌), 지표 작업반) 회의는 지속가능개발 지표 적용, 도시 및 지방정책 연계, 기후변화, 메가트렌드 반영 등에 중점을 두어 도시·비도시 지역정책을 발전시키고, 회원국 간 정책경험 공유를 위한 자리임
 - 지역·도시 정책, 비도시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등 관련 토론 및 회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OECD 내 한국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
 - 회원국의 경험과 정책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정책 연구 활용
- 한국 대표단 구성원: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백현식 과장, 지역정책과 엄수연 사무관, 도시활력지원과 윤동영 사무관, 수도권정책과 이현영 주무관, 국제협력담당과 문성윤 자문관, 국제협력담당과 박형빈 주무관, 국토연구원 이진희 책임연구원, 정기성 책임연구원

II. 출장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5월12일(일)	인천		(13:20) 인천 출발	
		파리	(18:30) 파리 도착	
5월13일(월)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CFR)		Working Party on Territorial Indicators • Opening remarks • Reporting back from the RDPC Ministerial week • Subnational finance data and analysis • Functional areas in all territories • New Data visualisation tools in development • Megatrends and regional development • Measuring urbanisation and its consequences with a global coverage • Culture, well-being and regional development • Linking indigenous communities with regional development	
5월14일(화)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CFR)		Joint WPURB-WPTI Workshop • Opening remarks • Presentation of the draft OECD localised indicator framework • Feedback from delegates and other participants • National and other institutions' perspectives • Regional and city perspectives • Discussion and way forward	
5월15일(수)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CFR)		Working Party on Urban Policy • Opening remarks • Reporting back from the RDPC Ministerial week • Tour de table • Territorial Review of Hamburg Metropolitan Region • National Urban Policy • Housing affordability in cities • Update on other items • Wrap-up	
5월16일(목)	파리		(21:00) 파리 출발	
5월17일(금)		인천	(15:00) 인천 도착	

※ 항공권 및 여권 사본 등 검증자료 첨부

III. 수행사항

1. 핵심 요지

- (제36차 지역지표작업반 세션) 국가별 도시 정책의 이슈 및 지난 20년간 OECD에서 수행한 도시정책 관련 연구의 성과 논의, 올해 만료되는 지역개발정책위원회와 작업반의 강령(mandate) 연장 관련 논의, 지방 정부의 재정 데이터 분석 방법 및 기능적 도시 지역과 기능적 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 논의, 메가 트렌드의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이 논의됨
- (지역지표작업반 - 지역정책작업반 합동 워크숍)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 방법과 지역지표 적용방안, 다양한 국가의 활용 사례를 통한 국가적·지역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활용방안, 향후 연구 계획 등이 논의됨
- (제25차 도시정책작업반 세션) OECD RDPC에 대한 지난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개발정책위원회 강령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논의, 참가국의 최신 도시정책 사례 및 의견 공유, 함부르크 대도시권 정책 리뷰 결과 발표 및 보고서 승인, 국가 도시정책 및 주택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 논의 및 참가국 의견 수렴, 지난 과제 업데이트 내용 등이 확인됨

2. 관찰 및 평가

- 금번 제41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는 세계화, 고령화나 기후변화와 같은 메가 트렌드의 도시정책 반영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지역지표 활용방안 등 세계적인 도시정책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아울러 주요 회원국들이 소개한 자국의 도시·지역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한국의 아이디어를 각국과 공유하는 계기가 됨
- 한국 대표단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백현식 과장은 OECD 연구 결과에 대해 한국 사례 소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함

[붙임] 제41차 OECD RDPC 회의록

□ 제36차 지역지표작업반 세션

- 회의명
 - 제36차 지역지표(Territorial Indicator)작업반
- 개최일시 및 장소
 - 2019년 5월 13일(월)
 - OECD Room CC11
-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백현식 지역정책과 과장, 엄수연 지역정책과 사무관, 윤동영 도시활력지원과 사무관, 문성윤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자문관, 박형빈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주무관, 이현영 수도권정책과 주무관
 - 국토연구원 이진희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정기성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주요 주제
 - 국가별 도시 정책의 이슈 및 지난 20년간 OECD에서 수행한 도시정책 관련 연구에 대한 성과 논의
 - 도시 정책 원칙에 대한 회원국 의견 수렴 및 집단 토론 실시
 - 도시정책에 관한 OECD 주요 이니셔티브에 대한 논의 진행
 - 세계의 도시 정책·교통 접근성 등에 대한 예비 논의 진행

[ITEM1] 오프닝 세션(Opening remarks)

1) 올해 3월 아테네 RDPC Ministerial 회의 결과 요약

- 올해 3월 19-20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OECD Regional Development Ministerial 회의의 결과로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지역 기반(Place-based) 및 지역 특성에 민감한(Place-sensitive)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
 - 도심과 외곽지역의 미묘한 뉘앙스 이해(nuanced understanding)를 바탕으로 하여 두 지역을 연계
 - 지방정부와 관련 이해관계자 및 주체들의 참여를 심화함

2) 지역 개발 정책 위원회 RDPC와 작업반의 강령(mandate) 연장 관련

- 2015년부터 시작되었던 지역 개발 정책 위원회 RDPC(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와 3개의 작업반인 국토지표(Territorial Indicators), 교외 지역 정책(Rural Policy), 도심 지역 정책(Urban Policy)의 권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끝남
- 2020년 12월까지 1년 간 연장기간을 거쳐 2024년까지 공식적인 권한 연장을 계획

중임

- 새로운 RDPC의 권한 연장을 맞이하여 OECD 회원국들의 수준 높은 국토·도심 및 지역 정책들을 반영한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

[ITEM2] 지방정부의 재정 데이터 분석 (Subnational finance data and analysis)

1) 지방정부의 재정 및 투자에 대한 고찰 및 데이터 구축 개선

-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인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SNA)의 장점이 많지만 한계가 있으며, 예를 들어 지방 정부의 구체적인 섹터들을 커버하지 못함. 이는 다른 기관들과의 구조적 차이에 의해 교류되지 못함
- 개선된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 필요
 - ① Identification of data source: 다양한 경로로 자료 확보하고
 - ② Conception: 다양한 흥미 주제 선택, 데이터베이스 템플릿, 포맷 디자인 도입
 - ③ Coding and Aggregation: 엑셀 등 정형화된 컴퓨터 베이스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코딩 및 수집이 이루어 져야 하며,
 - ④ Outcome: 마지막으로 종합 분석된 데이터를 oecd 사이트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2) 지방분권과 자치적 의사결정권을 측정하기 위한 지자체의 재정지출 지표 수립

- 이상적인 지방분권 효과 및 지자체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레벨에서의 측정지표를 수립
- 실제로 많은 국가들의 지방정부들이 중요한 서비스 공급 주체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간 지자체 재정 지출 및 수입에 대한 통계적 데이터는 부족 등 문제 발생
 - 현재의 재정 또는 정치적 지표만으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분권화 정도를 측정하기에는 부족
 - 최근의 측정 지표들(RAI/Regional Authority Index, LAI/ Local Authority Index)은 분절되어 있는 지방정부(subnational government)들의 재정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 지방정부 레벨의 구체적인 재정의 수입·지출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선된 지방분권(Decentralisation) 정도를 측정하고 지자체 및 국가 간 비교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본 프로젝트의 목적
 - ① Raw Data,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② Within and between country comparisons, 국가 내 국가간 비교분석을 할 수 있으며; ③ Link the data collected, 구축된 다른 데이터와 연계하여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④ Understanding Decentralisation, 국가별 지방정부 차원의 자치권 정도를 이해
-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지표

- ① 지자체별 인구, ②부문별 지자체 재정 지출의 연관성, ③지자체 총 수익 중 권리 등의 이전 정도, ④주요 10개 부문(분산, 분배, 지니계수, 분산계수 등)의 1인당 지출 등

3) 질의 및 논의 내용 요약

- OECD 참가국들 커멘트 요약
 - 국가 차원의 레벨에서 지방정부 레벨로 구체화 시킨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으나, 자칫 인간(Human)레벨에 대해서 놓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한 지표의 추가 고려 필요
 - 재정 지출의 규모별 구분이 필요할 수 있음 Large budget, Medium budget, and Small budget.
 - 공공 부분의 재정지출(Public expenditure) 측면도 고려할 필요 있을 것
 - OECD의 다양한 국가별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수입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 국가별로 다양한 행정 체계 및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데이터가 다를 수 있음. 국가별 협력이 필요한 부분

[ITEM3] 국토 내 기능적 지역(Functional Areas)

1) 기능적 지역(Functional Area)

- 기능적 지역의 개념 및 목적
 - 모든 종류의 토지(도심, 외곽 지역 포함)를 대상으로 경제적 연결(Economic linkage)을 기반으로 한 공간 및 지역 규정
 - 효과적인 정책 디자인을 지원하고 적합한 지리적 공간(scale) 데이터 구축을 위한 목적
 - OECD 국가들의 다양한 행정 공간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으로써 기능적 지역을 도입하여 국가 간 동일 체계 속에서 비교 분석이 가능
- 기능적 지역(Functional Area)의 연혁 및 종류
 - 2002년 OECD에서 기능 지역(Functional Regions)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2012년 기능적 도심 지역(Functional urban areas) 개념 제시 및 2013년 EUROSTAT의 노동시장 지역(Labour Market Areas) 도입 등 현재까지 기능적 지역 관련 연구를 oecd와 협력 기관에서 수행
 - 기능적 지역을 핵심 거점 중심의 기능지역(Core based functional areas)와 통근통행 흐름만을 기반으로 형성한 비 거점 중심의 기능지역(Non-core based functional areas)으로 구분
- 기능적 지역(Functional Area)의 적용 사례
 - Eurostat의 노동시장지역(Labour Market areas)중심의 기능적 지역을 규명하기 위하여 오픈소스 프로그램(R, Python)을 이용하여 사례국가(한국, 멕시코)에 적용
 - 그 결과 한국은 평균 524,000명의 고용자 수를 나타내는 56개의 기능적 지역(Functional Areas)이 규명되었으며, 멕시코는 평균 55,000명의 고용자 수를 나타내는 224개의 기능적 지역이 규명됨
- 기능적 지역(Functional Area)의 한계와 향후 방향

- 국가마다 다른 지자체 면적 크기와 인구 밀도에 의한 방법론 적용의 비균일성 문제
- 국가와 지역마다 고용 및 통근 통행 데이터 확보 가능성 차이와 데이터 질의 차이 문제
- 기능적 도심 지역(Functional Urban Areas)포함 유무에 대한 이슈
- 향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능적 지역 도입에 대한 적절성 검토
- 기능적 지역 규명을 위한 변수로 통근통행 데이터 뿐만 아니라 황무지(Brown fields)등 다양한 요인 및 데이터들을 적용

2) 캐나다(Canada)의 기능적 지역(Functional Area) 간 조화 연구 사례

- o Census Metropolitan Areas (CMA) and Census Agglomerations (CAs)는 캐나다의 오랜 기간동안 구축되어온 거점 중심의 기능지역(Core based functional areas)임
- o 캐나다 통계기관은 기존의 CMA와 CAs 기능지역과 비거점 중심의 기능지역(Non-core based functional areas)인 자급 경제 시장 지역(Self-contained Labour Market Areas/SLA)의 혼합 및 조화를 위해 시나리오 별 연구를 진행
- o 세 가지 적용 시나리오: ① SLA 설정 이후 세분화된 그룹(CSD)을 제거; ② SLA의 자급 경제 수치를 조절; ③ CMA와 CAs 제외한 교외 지역만 적용
- 세 가지 옵션 모두 기존 기능 지역과 새로운 기능지역 간의 조화가 가능할지 알아본 작업으로 그 의미가 있음

3) 에스토니아(Estonia)의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한 기능적 지역(Functional Areas) 설정

- o 인간의 행동 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언급
- o 에스토니아 모바일 데이터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강조
- 모바일 데이터의 특성(위치 정보, 시간, 전화 건 사람, 받은 사람 정보, 익명성 등)을 설명하고 에스토니아 인구의 약 94%가 모바일을 사용하며 이 데이터를 이용해 국토의 99.9%를 적용할 수 있음을 강조
- 모바일 데이터 상에서 사용자의 직장-주거와 직장 이외 지역-주거의 활동 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사회 관계적 네트워크, 계절별, 주요 이벤트 기간별 사용자의 사회·공간적 활동을 파악할 수 있음
- o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능적 지역(Functional Areas) 설정의 새롭고 다양한 적용 변수의 가능성을 제시

4) 질의 및 논의 내용 요약

- o 한국 대표단 발언
- 기능적 지역을 한국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해하는 기능지역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도 있음. 대도시 내 교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기능적 지역에 대해서 정책적 분석이 더 정교하게 되어야할 것임. 또한 한국의 기능적 지역의 결과 이미지 내 색깔 구분 및 범례의 의미를 알 수가 없고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썼는지 알 수 없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 EU 대표단 발언

- 캐나다의 사례에 적용되었던 방법론을 다른 국가에 적용 할 때 국가별로 다른 행정 구역 체계 및 도심-외곽지역 구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
- 에스토니아 사례에서 사용된 모바일 데이터의 특성 상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장시간, 고비용), 사용자 정보 유출 가능성, 데이터의 신뢰도, 기능적 지역 규명 시 데이터 적용의 광범위성 등 많은 우려를 표시

[ITEM4] 공간 데이터 시각화 수단의 발전

1) 지역의 전환(transition)과 세계 속의 도시(cities in the world)의 시각화

- 첫 번째로 변화의 과도기에 있는 지역(regions in transition)의 정책 결정자들이 해당 지역이 다른 OECD 국가 내 지역들과 비교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게 해주는 시각화 툴(tool)을 OECD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6개의 주제와 40개 이상의 주요 지표를 알기 쉽게 시각화하며 및 각 지표별로 지역별 순위를 제공
- 두 번째로 세계 속의 도시(cities in the world) 툴(tool)은 최소 인구 50,000 이상의 기능적 도심 지역(Functional Urban Areas/FUAs)을 세계지도 상에 나타내며, 국가별로 FUAs의 개수와 위치를 파악

[ITEM5]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지역 발전

1) 지역의 국제화(Internationalisation) 측정

- 올해 3월 열린 “Megatrends: Building Better Futures for Regions, Cities and Rural Areas” OECD 회의에서 세계화(Globalization)을 포함한 다양한 메가트렌드를 논의함
- 국제적으로 지역 간 비교할 수 있는 국제화(Internationalisation) 지표들을 측정하는 것의 중요성 강조
- 이미 OECD에서는 지역의 매력도(Attractiveness), 경쟁력(Competitiveness), 웰빙(Well-being)지수 등 국제적으로 해당 지역이 어느정도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국제화 지표들을 제공함
- 이러한 국제화 지표는 해당 지역을 긍정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역할도 함
- 지역적 국제화를 측정하기 위한 4가지 주제별 프레임 워크
- ① Infrastructure, 인프라; ② Human connections, 인간 관계; ③ Knowledge, 지식; ④ Business connection, 비즈니스 관계
- 상기의 영역으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해당 주제와 연관되는 지표들을 설정

2) OECD 국가의 도시 및 지역 별 디지털 기반의 데이터 확보의 개선 방안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로 높은 수준의 빅데이터 확보와 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OECD 국가와 지역 간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정도나 수준의 차이가 큰 상황임
- 현재 OECD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는 시군구(TL2)단위에 일률적인 인터넷 접속 획득 데이터로 지방정부 및 지자체의 데이터를 디지털화 하는데에 한계가 있음
- 4G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으로 읍면동 단위(TL3), 기능적 도심 지역 단위(FUAs) 등 데이터 확보 범위를 다양화 하고, GIS 공간데이터 (Shapefile) 수집 등 데이터 수집 종류를 확대하는 노력 필요

3) OECD 도시 및 지역의 고령화(ageing)와 생산성(productivity)

- 고령화 현상은 대부분 oecd 국가들 다 겪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며 이는 노동시장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큼
- 단순 퇴직자에게 집중하기보다 고령 종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것이 노동 생산성 향상
- 지역별로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고령화와 생산성 향상의 상관관계를 규명함

4) 질의 및 논의 내용 요약

- 고령화와 지역의 재정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에서 고령자들의 연금(pension)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음. 도시의 평균을 사용할 때 연금 수혜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화와 관련하여 조심스럽게 데이터를 다룰 필요가 있음
- 일본은 고령화 현상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최근 일본에서 고령화와 관련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아이디어를 나눔
- 고령화 현상은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인구·사회학적 측면을 같이 고려해야 함. 또한 유럽 국가들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이민자들의 연령이 높은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의 재트레이닝을 통해서 컴퓨터나 새로운 기술을 익혀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

[ITEM6] 문화와 삶의 질을 고려한 지역 개발

1) 주관적 삶의 만족도 측정하는 도시 지표(Urban Brometer) 구축

- 도시민들의 삶의 만족도 및 웰빙 정도는 지역 정책의 핵심이나 지표 수립 및 데이터 구축에 어려움

- 공간적 불평등과 분절 등으로 인한 객관적 도시 지표들은 많은 반면, 웰빙 및 삶의 질로 대변되는 주관적 지표는 상대적으로 규명되기 어려운 상황
- 지방정부는 주로 수입, 고용, 건강 등의 객관적 데이터 구축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관적인 데이터 구축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 o 시민들의 웰빙과 다양한 측면의 삶의 만족도 및 인식 지표를 대규모로 구축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o OECD 도시지표(Urban Brometer)는 이러한 주관적 지표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인 설문 수단을 통해 시민들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인지 데이터(Perception data)를 수집함
- 파리를 대상으로 OECD 도시지표 선행 연구를 진행한 결과 파리 내 지역별로 삶의 만족도, 보안 및 치안에 대한 느낌, 직업 만족도, 주거 만족도 등을 분석

[ITEM7] 원주민 커뮤니티와 연계한 지역 개발

- o 인구 사회학적 다양성을 추구하며,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원주민들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정책적으로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
- o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현재 원주민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 (데이터 소스 부족, 지리적 분야 데이터 부족 등)가 존재
- o 원주민들과 비원주민들 간의 고용, 실업, 교육 등의 차이를 살펴보고 도심과 외곽지역 등 지역별 원주민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적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에 부합하고 UN의 원주민 권리 헌장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를 구축
- o 이를 기반으로 원주민들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역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음
- 다만 원주민들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원주민들의 정체성 변화 가능성 및 국가별 데이터 수집 방법과 원주민의 기준도 상이할 가능성 고려

□ 지역지표작업반 - 지역정책작업반 합동 워크숍

- o 회의명
 - 지역지표작업반(WPTI) - 지역정책작업반(WPURB) 합동 워크숍
- o 개최일시 및 장소
 - 2019년 5월 14일(화)
 - OECD Room CC11
- o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엄수연 지역정책과 사무관, 문성윤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자문관, 이현영 수도권정책과 주무관

- 국토연구원 이진희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정기성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주요 주제
 - 2019년 9월 개최 예정인 제12차 지역개발컨퍼런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역 정책 원칙에 대한 회원국 의견 수렴
 - 원주민 공동체, 비도시 지역의 공공서비스, 지역 성장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한 연구 보고서 발표 및 토론
 - 지역데이터의 활용 방안과 TL3를 거리와 밀도를 기준으로 재분류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

[ITEM1] 오프닝 세션(Opening remarks)

1) OECD WPTI 의장(Chair) 연설

- 지속가능한 발전은 많은 OECD 국가들이 큰 관심을 가지는 내용
 - 기후변화, 주택, 인구 등등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 oecd 국가 및 지자체들이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 도시들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 및 개발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SDGs는 도시의 발전에 강력한 수단(tool)이 될 것임
 - SDGs 지표 적용을 통해서 OECD 국가 및 지방 정부 간에 비교분석을 진행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 지표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OECD가 구축하고 있는 SDGs 지표 데이터는 범용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며, 오늘 워크숍을 통해 국가별 지역의 지속가능성 지표 프레임워크 형성 및 적용 사례는 이러한 데이터 적용의 부족한 부분(gap)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ITEM2] OECD의 지역 지표 초안 작업 소개

1) OECD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지표 수립

- 현재 OECD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적(SDGs)에 부합하는 지역 지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진행 중
 - ① Measuring, 각 도시와 지역의 지역지표가 측정되고; ② Learning, 각각의 사례를 통해 배우고; ③ Sharing, 지방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 간 교류를 통해 공유되고; ④ Policy Recommendations, 정책으로 반영됨
- 지속가능한 개발 지표(SDGs)는 지방정부 및 지자체(Subnational) 레벨에서 측정되며 범위는 시군구(TL2)와 250,000명 이상 거주하는 기능적 도심 지역(Functional Urban Areas)으로 구성
- 도시와 지역에 적합한 SDGs 지표와 적합하지 않은 SDGs 지표들을 분류 및 선정하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Annual excel questionnaire, Eurostat and NSO's web sites,

Cooperation with other OECD Directorates 등)를 통해 지표별 데이터 구축

2) SDGs 지표의 달성 목표 측정 방안

-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치에 도달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별 한계수치(End-values)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 일정 수준의 지표 값이 넘어서면 부정적인 상황이 극대화 되게 되는 지점을 의미
- 지표들 가운데 일부는 사전 정의된 한계수치를 가진 것들이 있으나 긍정적인 의미의 지표의 경우 그 한계 수치를 규정하는 것에 의문이 생기는 상황
- OECD는 지표들 값을 0-100 수치로 표준화 하여 100을 한계수치로 두는 방안과 지역 간의 수치 값들의 비교를 통해 각 국가별 최고의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들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제시

3) 지역(Regions)과 도시(Cities)의 SDGs 지표 시각화 도구

- OECD는 웹 포털을 통하여 각 국가별 지역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지표들의 값을 시각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정책 결정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지역과 도시들의 SDGs 지표 달성 현황을 파악 할 수 있게 달성 목표치까지의 거리를 알게 하는 효과
- 1000개 이상의 OECD 내 시군구 지역과 기능적 도심지역(FUA)을 나타내며 90개 이상의 SDGs 지표를 적용하여 시각화 서비스
- 지역 및 도시별 지표 현황, OECD 평균 값, 한계수치(end-values) 등을 표시

4) 질의 및 논의 내용 요약

- EU대표단 발언
 - 지표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조금 우려가 되며 지역 지자체나 맞춤형 새로운 지표들을 제시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기존의 많은 지표들 중에 골에 맞게 선택 하는게 중요
 - 어떤 SDGs 목적에는 지표들이 잘 매칭 된 것 같지만 아닌 것도 보임
 - 도시들 간 지표 비교 시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진 지역끼리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 지표 해석의 측면에서 지역의 적합성과 스케일의 적합성이 중요
 - 모든 지표들에 시간 변수의 적용 없이 측정 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지표 값을 보고 장기간 모니터링 하는 것을 제안
- 스위스 대표단 발언
 - 지표 적용의 도시 기준인 인구 250,000이상 여기에 속하지 않는 OECD 도시들이 있음
 - 예를들어 아일랜드 도시들 중에 해당 기준에 속하는 곳이 없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GDP등 다양한 기준 적용을 고려
- 일본 대표단 발언
 - 기능적 도심 지역에 대해서 우려가 있음
 - ① 도시별로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데이터가 있어 데이터 갭 발생

- ② 도시를 데이터로만 해석한다면 왜곡될 우려가 있음
- ③ 양적 측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표를 해석 하는데 인터뷰 등 질적 데이터는 도시에 대해서 더욱 깊이있게 이해할 수도 있음. 두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할 것임
- ④ 기능적 지역 개념이 실질적인 도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아직 풀어야할 난제들이 존재
- o 벨기에 대표단 발언
 - 한 도시가 어떤 SDGs지표에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 이후로 그 측면에서 대해서는 추가적 대응을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제기
- o 한국 대표단 발언
 - 한국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도 이러한 방향은 유효할 것임

[ITEM3] 국가 및 기관별 관점(National and other institutions' perspectives)

1) 네덜란드 Global Data Lab

- o 중 저소득 국가LMICs(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지역 지표(Subnational Indicators)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기관
- 130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주거 빈곤, 기아, 교육, 공공 서비스 등의 지표 데이터를 지방정부(지자체) 레벨에서 구축 및 분석
- SDGs 지표들 가운데 본 기관에서 구축하는 데이터와 연관되는 자료들을 정리
- 향후 더욱 유연한(flexible) 지표들을 구성하여 지역의 자연 재해 회복력에 대한 지표를 구축할 계획

2) UN-GGIM: EUROPE

- o 지리-공간적 데이터와 통계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 지표(SDGs)의 국토 차원의 분석 진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관
- SDGs 의 17가지 지표의 목적 달성에 맞는 맞춤 하위 지표들을 다양한 데이터 소스(IAEG-SDG WG GI, Eurostat, EU Urban Audit contributions to UN SDG Agenda, National indicators 등) 를 통하여 구축
- 구축한 지표 데이터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 지표 및 공간의 공유 지표 등을 새롭게 형성
- 적합한 공간 데이터 사용하여 SDGs 주제 와 매칭 시키는 것이 관건이며 향후 인공위성 데이터를 통해 생산된 지리 공간 레이어를 활용 계획

3) EUROSTAT

- o 지속가능한 EU의 미래를 위한 정책 ‘Commission Communication COM(2016) 736’에 의거하여 2017년부터 EU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

표 형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EUROSTAT은 현재 100개 이상의 SDGs 연관 지표들을 구축하였고 각 목적(Goal)들은 5~12개의 연관 지표들에 의해 평가되고 모니터링 됨
- SDGs 연관 지표들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Frequency of dissemination: 데이터 보급이 원활하며
 - ② Timeless: 시간적 제약이 없고
 - ③ Geographical coverage: 지리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 ④ Comparability between countries: 국가 간 비교 가능하며
 - ⑤ Length of time series: 기간(연간) 구축이 가능하고
 - ⑥ Comparability overtime: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 가능해야 함
- 현재 EUROSTAT 홈페이지에는 SDGs 목적별 지역의 적용 범위 별 지표 데이터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음

4) JOINT RESEARCH CENTRE(JRC)

- 유럽의 도시(Urban)차원의 SDGs 지표 측정은 기관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이며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 데이터 플랫폼 구축, 트렌드 및 미래 예측 정보와 함께 SDGs 지표 데이터 제공
- 지방 정부를 위한 지역의 SDGs 핸드북 공급하여 해당 지역의 현재 적용 지표와 지표의 모니터링 및 도시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 및 전략 제시

5) Bertelsmann Stiftung(독일)

-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SDGs 지표 데이터를 제공하고 구축하는 것이 기관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며 SDGs 목적에 맞는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과정을 거침
 - ①Collection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해 지표 데이터 수집
 - ②Evaluation 수집한 데이터의 질, 사용 가능성, 사용 기한 등을 평가
 - ③Selection 다양한 기준 평가를 통과한 지표 데이터를 선택
- 이를 통해 SDGs의 17개 목표별 지표가 독일의 지자체 차원에서 모두 구축되었음
 - 구축된 SDGs 지표들은 해당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4가지 활용도를 가진 수단으로 사용됨
 - ①sustainable report: 지속가능한 보고서 생산
 - ②sustainable strategy: 지속가능한 전략 수립
 - ③sustainable check: 지속가능한 검토
 - ④sustainable Budget: 지속가능한 예산 확보
- 독일의 지자체를 위해 구축되는 본 방법론은 국제적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임

6) Istat(이탈리아)

- 2030 Agenda에 의거하여 국가의 기아와 불평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SDGs 지표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6개월 마다 이탈리아 내 175개 지역과 58개의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123개의 SDGs 지표와 303개의 통계적 측정을 모니터링
- 본 기관은 하나의 SDGs 지표 중심으로 연관되는 다른 SDGs 지표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표 간 영향 정도에 따라 구분을 하는 등 새로운 해석의 접근방법을 제시

7) Central Statistics Office(아일랜드)

- 지역화된 SDGs 지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목적별 데이터 구축 결과를 시각화 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기관
- 본 기관의 SDG 포털 사이트에서는 200개 이상의 지표들과 100개 이상의 공간적 데이터 세트를 활용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 SDGs 지표들의 대부분을 나타낼 수 있게 서비스 되고 있음
- 만약에 해당 지표의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면, 직접적으로 SDGs 지표를 나타내지 않더라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데이터 부족(data gap)을 채움

[ITEM4] 지역 및 도시별 관점(National and other institutions' perspectives)

1) 플랑드르 (Flanders)

- 13,522km²면적의 인구 6,444백만이 사는 프랑스 북부에서 벨기에 서부에 이르는 지방
- 비전2050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플랑드르 장기 전략을 세움
 - ①경제, ② 스마트 리빙, ③ 산업 4.0, ④ 평생교육과ダイナミック한 전문직, ⑤ 보육과 함께하는 삶 in 2050, ⑥ 교통과 이동, ⑦ 에너지 분야
- 또한 FOCUS 2030 계획으로 2030년까지 달성해야할 목표 9가지를 세우고 주요 5가지 영역으로 구분 함
 - ① Human, 사람; ② Prosperity, 번영; ③ Planet, 환경; ④ Peace, 평화; ⑤ Partnership, 파트너쉽
- 5가지 영역에 맞추어 204개 지역 지표들 가운데 핵심 54개 지표를 선택하였으며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Quality, 데이터 질이 높으며; ② Being measurable, 측정 가능하며; ③ Relevancy, 관련성이 있으며; ④ International comparison, 국제적 비교가 가능
- 플랑드르의 54개의 지역 지표들은 SDGs 지표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지속 가능 개발 지표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2) 비켄 (Viken)

- 지속가능한 개발(SDGs)의 달성 목표를 비켄 지역의 도시 계획 정책에 접목
 - ①비켄 지역의 현황 데이터를 모아 SDGs의 목표 분야별로 분류를 하고
 - ②지표 분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도시 계획 전략 리스트 작성
- 비켄의 51개 자지구들의 해당 지표 데이터는 포탈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됨
 - 향후 SDGs 세부 목적별 지표 데이터 구축을 진행

3) 파라나, 브라질 (Parana, Brazil)

- 브라질 파라나 주는 Curitiba를 수도로 하고 1,100만의 인구와 399의 도시로 이루어짐
- 파라나는 1973년부터 다양한 지표 구성으로 파라나 주의 현황 변화를 파악하였으나, 대부분 지역 수준의 데이터가 아니었으며, 전국 수준의 인구 센서스 조사가 10개 항목으로 10년에 1번씩 집계되는 등 데이터 구축에 문제가 있음
 - 이에 파라나 주는 Business Intelligence 시스템 기반의 시각화가 용이한 포탈을 개발하여 서비스 중

4) 본 (Bonn)

- 독일의 본은 2005년 이래로 지속가능한 개발 지표를 구축하여 4가지 분야의 45개 지표를 구축하여 모니터링
 - ① Well-being, 웰빙; ② Social Justice, 사회 정의; ③ Environmental Quality and Efficiency of Resources, 환경친화 효율적 자원; ④ Efficiency of Economics, 효율적인 경제
- SDGs 프레임 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지표에 14개를 더해 총 58개의 지표를 구성하여 지자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모니터링함
- 향후 새로운 관련 지표들을 만들되 스마트하고 심플(Smart and Simple)한 것을 추구
 - 지표를 통해 지자체들 간에 비교가 목적이 아닐 것임

5) 키타큐슈 (Kitakyushu)

- 일본 키타큐슈 지방의 지속가능한 개발 SDGs 지표 구축은 OECD에서 제안한 기능적 도심 지역을 기반으로 구축하지 않고 전통적인 행정 구역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구축함
 - ①데이터 생산이 행정구역 단위로만 이루어지며
 - ②행정구역과 기능지역의 두가지 범주가 상충될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 ③실증적 데이터 기반의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되기 때문
- 키타큐슈는 SDGs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균형잡힌 다양한 지표를 구하였으며, 시민들의 삶으로부터 기인한 지표를 개발
 - SDGs 지표 가운데 '교육'측면의 지표와 목표를 키타큐슈 교육 커리큘럼에 적용

- 또한 SDGs 목표 달성과 연계하는 ‘Uomachi’ 쇼핑 스트릿을 조성(① 기존에 쓰지 않던 건물을 활용, ② 지속가능한 에너지활용을 위해 태양광 패널 설치, ③ 주변환경 미화 자원봉사자 활동 등)
- 이외에 ① 고령층 삶의 질을 높이고 ② 지역의 여성 그룹이 경력 단절을 피하고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Women Work Cafe in Kitakyushu)하며 ③ 로봇을 활용한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④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커뮤니티 식당 운영
- 이러한 SDGs 연계 사업들의 시작은 시민들이 했지만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자원을 제공하여 활성화
- 기타규슈는 SDG Club을 형성, 400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음. 기업, 대학, 등등에서 후원하고 많은 기관들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적 커리큘럼도 제공
- 일본도 수직적 운영 측면이 강하여 중앙 정부가 지역의 SDG 개발을 위해 강하게 지원: 30 leading 도시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등 강한 수직적 체계가 구성
- 중앙정부의 수직적 지원과 함께 SDG 클럽에서는 수평적 코디네이션이 강하게 진행되어 균형잡힌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지역의 개발이 가능

6) 모스크바 (Moscow)

- 러시아 모스크바의 지속가능한 개발 지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도시, 지역, 지자체 차원에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전문가의 의견보다 객관적 데이터에 집중함
- 몇몇의 SDG 지표들은 지역과 도시 레벨에 적합하지 않으며 적합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지역별 데이터 비교에 있어서 지역 간 다른 기준을 가질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SDGs의 17개 목적별 지표를 구축
 - ① 한계지수(no end-value)의 경우 이것을 모든 지역에 다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 ② 기능 도심 지역에 시작하기 보다는 기존의 지역 도시들에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은 질의 데이터 구축의 방법으로 제시
 - ③ 데이터 구축 시 공통적인 내용의 설문보다 지역별 대표적인 내용로 디자인 할 필요

7) 질의 및 논의 내용 요약

- 일본 사례에 대한 참가국들 의견
 - 일본 러시아 파일럿 사례에서 보는 것이 기능적 도심 지역(functional urban areas)에서 데이터를 구축하기 보다 기존의 행정구역 상에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
 - SDG 클럽은 SDGs 적용한 유익한 사례로 간주. 다른 사례들에 비해서 수직적 측면이 아니라 수평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아 좋아 보인다는 의견
 - 시민 주도의 bottom up 운영이 좋아보이며 여성 주도의 일본 사례 인상적임.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본 대표단 발언
 - 시민으로부터 기인한 SDG club. 시민과 여성 그룹이 캠페인을 벌이고 대학, 기업들과 함께

운동을 함

- 기타큐슈 시민들과 특히 여성들이 그들의 꿈을 위해 10년 이상을 이끌어 와서 이룬 것임
- 쇼펩스트리트, 아이들 커뮤니티 식당 등 시작한 시민들이 했지만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자원을 제공하여 활성화함
- 또한 SDG 시민 센터의 경우 빌딩은 공공적으로 만들었지만 콘텐츠 프로그램은 민간이 제공하는 콤비네이션 체제

[ITEM5] 논의 및 향후 계획(Discussion and way forward)

○ OECD 사무국 발언

- 일본의 사례는 긍정적인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의 사례로 보이며 웰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관되어 있음.
- SDG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부(Internal)지표들과 외부(External)지표들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고민
- 어떻게 SDG 목적에 맞는 지표를 선택을 할 것인가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지방정부(Subnational) 측면의 맥락(context)을 고려해야 함
- 지표 구성 및 지표간 융합 할 때 여러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임

○ 영국 대표단 발언

- 어떻게 100개가 넘는 SDGs 지표들을 적용하고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영국 브리스톨(Bristol) 시티를 대상으로 sdg 지표들을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음

○ 독일 대표단 발언

- 데이터 적절성측면에서 로컬 레벨은 나라 마다 데이터 접근 가능 여부가 매우 다름.
- 데이터에 사용에 대한 제약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유연(flexible)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쉽게 OECD도시와 지역의 내부 및 외부 데이터 구축하데 용이할 것

○ WPTI의장 발언

- SDGs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통해 배우고(learning) 어떻게(how to) 지방 정부에 연계되며 적용될지 고려해야 하며 또한 이 모든 과정이 공유(Sharing)되어야 함
- 그리하여 지역의 지속가능개발 프레임워크가 다음으로 더 발전해야할 여지가 생김
- 방대한 SDGs 데이터가 구축되었는데 데이터셋을 다루는데 있어서 지역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함
- SDGs의 지역적 프레임워크 형성은 또한 지역과 도시의 국제화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며 중앙과 지방 등 다양한 레벨의 정부에서 시민, 커뮤니티, 이웃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함

□ 제25차 도시정책작업반 세션

○ 회의명

- 제25차 도시정책(Urban Policy)작업반 세션

- 개최일시 및 장소
 - 2019년 5월 15일(수)
 - OECD Room CC11
-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백현식 지역정책과 과장, 엄수연 지역정책과 사무관, 윤동영 도시활력지원과 사무관, 문성운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자문관, 박형빈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주무관, 이현영 수도권정책과 주무관
 - 국토연구원 이진희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주요 주제
 - OECD 도시·비도시 정책 원칙 정립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 2019. 3. 그리스에서 개최 예정인 RDPC 장관급 회의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었으며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공공투자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 산업 전환 관리 등에 대한 보고서 논의
 - 이외에도 모로코의 RDPC 회원국 가입 승인 여부, RDPC 장관급 회의에의 비회원국 초청 여부에 대해 회원국 간 논의 진행

[ITEM1] 오프닝 세션(Opening remarks)

- 의장 발언
 - 모든 참석자와 본 세션 외에서의 모든 노력에 에게 감사하며, 특히 오늘의 의제가 잘구조화되어 전반적인 내용을 잘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지속가능발전(SDGs) 지표는 국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지역적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기준으로 적절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각기 다른 관점이 잘 연결되어야 함
- UK 대표단 발언
 - 어제까지는 광의적 수준(유럽국가간 수준(European level)과 국가적 수준 (national level))에서만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적용을 논의하였지만,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적(local)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함
 - 기타큐슈 사례의 경우 도시지역에 적용하여 실제 상황을 많이 반영하였으므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지역적 적용의 좋은 사례라 생각됨
- 의장 발언
 - 국가 지표를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으로 개별 나라들에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우리가 구축한 국가, 지역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지표에서 각 국의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미구축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연락을 주길 바람

[ITEM2] Reporting back from the RDPC Ministerial week

1) 제4차 포용성장에 대한 자치단체장 협의와 제7차 라운드테이블 결과

- 지난 제4차 포용성장에 대한 자치단체장 협의에서는 사회적·기술적 혁신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공공부문의 혁신을 강조함
 - 도시의 혁신 능력에 대한 블룸버그(Bloomberg) 조사에서는 각 도시에서 혁신이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시민 모니터링 기능 등 상향식 접근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웰빙과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혁신은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디지털화 되고 있음
- 제7차 라운드테이블에는 각국 자치단체장과 정부부처 관계자, 8개 기관에서 참석하였으며, 도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 적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의 연구에서 도시정책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민하였고, 그에 대한 비디오를 제작함
- 비디오에서는 지난 20년간 도시정책 발전을 위해 OECD가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마트 지속가능 정책을 제안함
 - 전 세계에 70%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 특히 도시는 생산력도 높고 기술력도 좋지만 교통정체나 대기 오염 등 많은 비용을 발생함
 - 최근 들어 도시정책에 있어 세계화나 고령화 등의 여러 트렌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OECD는 지난 20년 노력해 왔음
 - 토지자원이나 수자원, 이민자 문제 등 여러 분야의 도시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양한 회의를 진행하여 우리는 스마트 지속가능 정책을 제시함
 - 특히 단위(scale), 전략(strategy),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정책자는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하며, 도시정책은 도시뿐만 아니라 비도시까지 커버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하며 정책 평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2)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RDPC ministerial outcomes)

- 지난 회의에서 우리는 지역적 지방(rural)-도시(urban)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43개의 국가들이 파트너십을 이루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 회의에서는 지역정책과 도시정책, 지방정책, 메가 트렌드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다학제간, 다국가간 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음
 - 도시와 지방은 연결하는 것이 지역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 시민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회의 결과 지속적인 정책 개선 방향 도출과 함께 46개 국가가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지방정책과 도시정책에 대한 2개의 기본 원칙을 정립함
 - 각 국가들이 이 원칙들은 적극적으로 적용하고자 노력한데 대해 감사함

3) 지역개발정책위원회 강령 개정 (RDPC mandate renewal)

- 지역개발정책위원회 강령(또는 권한, mandate)은 위원회(committee)와 3개의 작업반(working parties)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올해 말 만료될 예정으로 다음 5년을 위한 리뉴얼을 진행할 예정임
- 지난 강령의 구조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이미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세 개의 작업반 관계와 평가, 투자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
- 모든 것이 중요한 일이고 매우 깊이있게 논의되었으며, 특히 메가 트렌드의 정책 반영과 디지털화, 장기적 관점에서의 포지셔닝 등의 논의에 열심히 참여해주길 바람
- 새로운 강령의 채택에 대해서는 다음주 월요일과 10월, 11월에도 깊이있게 논의할 예정임
- OECD acting head 발언: OECD 구조와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이 났으며, 위원회와 3개의 작업반에 대한 심층 평가는 3개 기준을 통해 진행 중에 있음
- 3개의 기준은 연관성(relevance, 각자 다른 기관들이 제대로 응답하였는데), 영향력(effectiveness, 정책의 영향력이 어떠한가), 효율성(efficiency,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로 데이터 평가(PIR)까지 모두 마친 상황임
- 특히 정책입안자가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정책적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였으며, 무엇이 정책입안자들에게 필요한가 역시 질의하였음
- OECD의 영향력에 대해 더욱 많은 질의를 통해 좋은 평가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심층 평가는 10개의 나라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조사는 모든 참석자에게 진행할 계획임

[ITEM3] Tour de table

- UK 대표단 발언
- 런던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지하철 노선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시티 딜(City Deal)에 대해 논의 중에 있음
- 로컬 레벨에서 공실률 증가와 같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제 성장을 목표로 로컬로의 접근성 강화와 재개발, 재생 사업, 대출(town bond) 방안, 펀드 수립 등을 고려하고 있음
- 브렉시트 이후 여러 변화가 있으며, 지방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의 수립이 중요함
- 오스트레일리아 대표단 발언
- 이번 수요일에 총선(national election)이 진행될 예정이며,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가에 따라 정책이 변할 것으로 예상됨
- UK에서 거버넌스 관련 이슈에 대한 시티 딜을 추진한 것과 달리 우리는 국가 수준 정책에 대한 시티 딜과 함께 7개 도시에 대한을 추진 중에 있음
-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주요 도시 밀도가 매우 높으며, 북쪽은 저밀의 열대성 지역으로 교육 정책, 대학 캠퍼스 중심지, 해안 도시, 관광 사업, 고속 성장, 교통 정체 등이 도시 정책의 주요 이슈임
- 이와 함께 소도시에 대한 시티 딜과 북측, 도시와 지방의 연결에 관심이 높음
- 이스라엘 대표단 발언

- 공공 투자를 통하여 여러 대중교통 시스템이 설립될 예정이며, 특히 수도권에 지하철을 건설할 계획으로 TOD 개발을 염두해 두고 있음
- 도시재개발(urban renewal)은 중앙 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재개발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사회·물리적 환경 개선, 고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도시정책에서는 최저 밀도 계획과 혼합 개발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일본 대표단 발언
 - 고령화가 도시정책에 있어 가장 큰 문제이며, 최근 도쿄에서는 워크숍을 진행함
 - 도시 관리에 대해 OECD 설문조사를 100명 이상 진행함
- 룩셈부르크 대표단 발언
 - 계획안의 평가와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국가 도시정책을 수립에 있어 새로운 도시 계층, 압축개발, 평등 지구(equal district), 에너지 제로 도시 외에 미래 공간 정책에 대해 고민 중에 있음
 - 정부부처간(interministries) 펀드를 모금 중에 있음
- 폴란드 대표단 발언
 - 도시화와 이해관계자간 관계, 기후변화, 플랫폼 구성 등에 대한 국가 도시 포럼을 유엔 해비타트와 함께 개최함
- 스웨덴
 - 재개발사업 추진 시 OECD 작업 내용을 반영하고자 노력 중에 있음
 - 지역 정책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수립 중에 있으며, 다양한 컨퍼런스 등에 참가함
 - 지난 1월 신정부가 들어서 새로운 정부 정책을 준비 중에 있으며, 특히 문화와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캐나다 대표단 발언
 - 최근 스마트 챌린지라는 이벤트를 통해 커뮤니티 기반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함
 -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참여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펀딩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디지털 건강 플랫폼(자살을 감소시킬 것을 목표로 정신건강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선정됨
- 미국 대표단 발언
 - 주택 혁신 개발(housing innovation development)과 기회 특구(opportunity zone) 등 주정부가 연방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네덜란드 대표단 발언
 - 산업 부문과 중앙정부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자가 펀드를 구성하여 활용 중에 있음
- 불가리아 대표단 발언
 - 도시개발을 위한 새로운 펀딩을 모집 중에 있으며, 다핵개발과 국가 공간 개발 개념을 정부가 제공함

[ITEM4] 함부르크 대도시권 정책 리뷰(

1) 함부르크 OECD 정책 리뷰 (OECD territorial review)

< 독일 대표단 발표 >

- 함부르크는 독일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OECD 정책 리뷰에서는 함부르크 지역의 국제적 관점에서의 성과, 개발 잠재력 평가 등을 진행함
- 또한 정책 디지털화, 에너지, 대중교통, 마케팅 등에 초점을 맞춰 리뷰를 진행함

< OECD 사무국 발표 >

- o 함부르크는 독일 북측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여러 다른 조직들이 참여하여 매우 강력한 광역권(Hamburg Metropolitan Region, HMR)을 형성하고 있음
- HMR은 전형적인 광역권으로 자체적 정책과 예산을 가지고 있음
- o HMR의 강점과 약점
- HMR은 높은 임금과 낮은 실직률을 보이며, 항구를 포함해서 다양한 경제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음
-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독일과 덴마크를 연결하고 있고, 스타트업에 좋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 하지만 타 광역권과 비교했을 때 인구성장 대비 GDP가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력 역시 떨어지고 있음
- o 도시정책 구조
- 클러스터 정책: 재생 에너지, 건강 과학, 생활 과학, 창조 경제 등 다양한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부문에서 자체적인 클러스터 정책을 가지고 있음
- 공간 계획: 구역, 지역, 주정부 등 다양한 수준에서 각기 다른 스케일과 타임라인을 가지고 공간 계획을 진행함
- 대중교통: : 대중교통조합이 있으나 광역권 전체를 커버하지는 않음
- 주택: 주택 규모와 가격 모두 증가 추세에 있음
- o 지역 혁신 정책 수립과 지역 공간 정책 강화에 있어 광역권의 범위를 넘어 보다 광범위하게 고민(Think Big)하는 것을 제안함

< 개별 발언 >

o 독일 대표단 발언

- OECD는 매우 글로벌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정책 제언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광역권은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국가 수준의 지역 계획 역시 여러 수준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분석 내용에 고속 데이터 통신망(broadband) 접근성 도면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현재 40% 정도로 이는 균형 문제에 있어 중요한 주제임
- 주택가격 상승은 불균형의 문제이므로 이는 좋은 제언이라 생각됨

o 함부르크 대표단 발언

- 항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됨. 함부르크 항구는 전체 지역의 약 40%

- 정도의 경제 파워를 가지고 있음
- 최근 조선업이 침체 추세로 항구의 역할에 있어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함부르크의 경제 구조가 점차 감소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UK 대표단 발언
 - 장기적 변화를 파악하는게 중요하며, 영국의 경우 킹스크로스 재생을 위해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진행하였음. 지역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의장 발언
 - 보고서를 승인함

[ITEM5] 국가 도시정책 (National Urban Policy)

1) 2019 글로벌 리포트 (2019 global report)

- 경제 성장, 온실가스 감소 등을 목표로 여러 기관과 공공, 민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했고, 2개의 차별성을 가짐
 - 1) 지역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정책
 - 2) 1.5℃ 시나리오를 도시에서 채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와 사회적 혜택
- 보고서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1장, 포용적·탄소제로 도시를 위한 중앙정부의 경로에 대한 그림; 2장, 경제 구조; 3장, 중앙정부의 역할; 4장,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
- 연구 결과
 - 저탄소 도시 구현을 통해 물리적 환경, 교통 분야 등에서 경제적 성과를 얻음
 - 특히 피츠버그와 스톡홀름 비교 사례에서 보여지듯 도시 유형(urban form)과 교통은 각기 다른 결과를 도출하게 됨
 - 지역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방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함
 - 국가 정책은 교통시스템과 같은 도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적 지원이 중요함
-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6가지 제언
 - 1) 저탄소 도시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도시와의 협력,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 준비, 3) 지속가능한 자원을 사용한 압축적이고 잘 연결된 도시 개발, 4)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와 산업 부문, 시민 사회 지원, 5) 전환을 위한 선제적 계획, 6) 포용적인 저탄소 도시 개발을 위한 다자간 노력 강화
- 의장 발언
 - 우리는 많은 도시를 연구해서 도시화에 대한 다양한 트렌드를 확인하였음
 - 저탄소 도시를 위한 노력은 중요하나, 잘못하면 해당 도시가 지역 내에서 소외될 수 있으며 특히 세금과 같이 도시의 비용 증가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타 지역과의 조화가 중요함
 - 토지이용규제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저탄소 도시를 구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고민

- 개발은 해당 지역 외곽에 사는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문제 역시 내재하고 있음
- 향후 20~30년 이내에 전기차 등 에너지 소비가 적은 방향으로 모빌리티가 변화될 것이므로 우리는 새로운 측면에서의 질문이 필요함
- 이스라엘 대표단 발언
 - 도시 유형은 에너지와 교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것만을 고민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 있음
 - NGO와 다양한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혁신은 정부가 이를 지원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 생각됨
- EU 대표단 발언
 - 도시 유형이 교통과 에너지 사용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오스트레일리아 대표단 발언
 - 도시 유형은 국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며, 교통 등에 있어 주요 도시에서만 컨트롤이 가능할 거라 생각됨

2) 국가 도시정책 프로그램 워크플랜 2019-2020(National urban policy programme workplan)

- 최근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어 최근 콘셉트를 포함하여 압축도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유엔 해비타트 등과 협업하였음
- 국가 도시정책 프로그램의 5가지 주제는 플랫폼 제공, 지식 강화, 국가 도시정책 시행 모니터링, 역량 강화, 직접적인 지원이 있음
-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국제 컨퍼런스 개최, 여러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가 여러 국가와 지역의 도시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 하지만 방법론적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리필드 템플릿(free field template)을 통해 더욱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ITEM6] 도시 내 주택 안전성 (Housing affordability in cities)

1) 도시 전환을 위한 연합과의 국가 주택정책 협력업무 내용 (OECD work on national housing policies in collaboration with the coalition for urban transitions)

- 압축도시의 커넥티드 시티(connected cities)에 대한 국가 정책의 일환이며, 압축도시를 통해 밀도가 10% 정도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 결과가 있었으나 주택가격 역시 증가하는 부정적 결과 또한 도출함
- 많은 지역이 슬럼화되어 있고 도시가 확산되어 통근시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접근성 강화를

- 위해서는 압축도시가 해답일 수 있음
- 따라서 국가 정책에서는 주택시장에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음
 - 주택시장 정책은 단독주택(single family housing)과 공동주택(multi family housing)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주택시장은 도시 유형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택시장에 있어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적용 가능성과 효과 역시 매우 다양함
 - 국가 정책은 다음의 세가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함
 - 보다 포용적이고 압축적 도시 구현을 위해 소유자와 임대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구상
 - 임대시장에 대한 잠재력을 개방
 - 주택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포용적 용도지역 체계(inclusive zoning)나 나대지 개발(infill development)와 같은 정책 활용
 - 이스라엘 대표단 발언
 - 고밀개발을 할 수 있는 정책은 많은데 오히려 지하 주차장 설치 등 관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가 되며, 따라서 고밀이나 적은 유지비용이 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는 비용 감소를 가지고 오히려, 주택가격안정화 (affordability)와 관련성이 높음
 - 미국 대표단 발언
 - 좋은 지역에 거주할 경우 높은 임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발 불허 등 여러 제약을 받게 됨
 - 포르투갈 대표단
 - 도시성장 제약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통해 저렴주택 정책이 필요함을 깨달았고, 각기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양하므로 각기 다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UK 대표단 발언
 - 런던의 경우 템즈강변에 고급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질과 좋은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음. 압축개발이 질을 보장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주택과 대중교통 연결이 중요한데 우리의 경우 새로운 역사 주변으로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그 지역에는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상업업무 공간과의 조화가 어려움
 - 한국 대표단 발언
 - 몇 년 전 서울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문제가 됐었는데 강력한 세제 규제를 통해 어느 정도 안정화됨
 - 최근 새로운 뉴타운 정책을 수립했는데 이는 다른 논쟁을 불러왔음. 특히 제2차 뉴타운 거주자들이 비효율적 대중교통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제기함. 적정한 주택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
 - 프랑스 대표단 발언
 - 프랑스는 많은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사회주택 정책이 대표적임. 우리는 25%는

사회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개발에 있어 임대료 지원(rent support) 역시 제공하고 있음. 사회주택은 재개발사업을 통하거나 공공공간에 대중교통과 연결해서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주택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여야 함

○ 의장 발언

- 최근 수요와 공급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 도시 외곽에 넓은 집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나 새로운 세대는 이러한 스타일을 선호하지 않음. 민간에서는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나 공공은 그러지 못함. 따라서 변화를 빨리 파악해야 하고 정책 초점을 바꿔야 함

[ITEM7] 지난 과제 업데이트 (Update on other items)

○ 세계의 도시들 (Cities in the world)

- 글로벌 도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단순히 인구 규모로 할 것인지 밀도로 할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함
- 1990년과 2015년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분석한 결과 OECD 참가국이 아닌 지역에서는 연간 3% 이상의 성장을 보였음

○ 파리 협약 이행에 대한 협업 (Working Together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 중앙정부의 국가 전략을 통해 여러 로컬지역에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기후변화를 위한 정책은 국가와 로컬이 함께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음
- 캐나다의 경우 중앙정부가 CO₂ 감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로컬에서 함께 공헌한 매우 특별한 사례임. 이 외에 더 다양한 국가의 사례가 보고서에 포함되었음

○ 고령화와 생산력 (Ageing and productivity)

- 고령화는 메가 트렌드로 일본 도쿄에서는 고령화가 실제로 생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짐
-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 적용이 어렵고 특히 로봇의 활용에 따라 노인들의 일거리가 감소하게 됨
- 도시지역은 고령화 추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의 경우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으니,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은 도시지역에서 발생함
- 고령화의 정의를 은퇴로 보는 것이 아니며 노동자의 고령화를 의미하므로 고령화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과 덜 이루어진 지역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우려가 있음

○ 지속가능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DG))

- 9개 지역에 대해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범적 조사(pilot dialog)가 있었으며, SDG가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함
- 지역화된 지표를 국가 기준과 비교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작업반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 지속가능개발 지표 활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는 2020년 도시포럼에서 공개할 예정임

○ 도시와 지역의 순환 경제 (Circular economy in cities and regions)

- 도시 경제가 어떻게 에너지와 온실가스, 자원 이용, 플라스틱 사용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 7월에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할 예정임
- o 스마트 도시와 혁신 (Smart cities and innovation)
 - 정보화(digitalization)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어떻게 측정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한국과 슬로바키아 등 여러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여 새로운 보고서 작업 중에 있음
 - 7월에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할 예정임
- o 도시 바로미터 (Urban Barometer)
 - 지난 회의에서 주관적 웰빙 측정(subject wellbeing measure)을 위한 정보화 방안 등 여러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제안서를 포기함
 - 새로운 방법론을 구상 중에 있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관적 웰빙 측정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문제 등을 검토할 예정임
- o 의장 발언
 - 다음 회의는 11월 18일에서 22일 사이 정도로 정확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

항공권 및 탑승권



PRESTIGE **탑승권** **BOARDING PASS**

NAME **LEE/JINHUI MS** **SKY PRIORITY**

FLIGHT **KE 901 12MAY19** TO **CDG PARIS**

DEP TIME **13:20**

BOARDING
탑승시간 **12:50**

GATE
탑승구 **231**

Please arrive at the boarding gate 40 minutes prior to departure.
(항공기 출발 40분 전에 탑승구에 도착하여 주십시오.)

NAME **LEE/JINHUI MS**

FROM **SEOUL/INCHEON**

TO **PARIS**

DATE **12MAY19 Y**

SEAT
좌석 **23B**

FLIGHT
편명 **KE 901**

AISLE

SKYTEAM ELITE 113827936479

TOTAL/REMAIN 110785/ 58285M

KE 26TIMES 96751 MILES

379

379/Y/23B/ICN/F 180 3492950175C1

SKY PRIORITY

Orange F LTE 오후 6:54 5G 마이페이지



SKYTEAM ELITE



+

LEE / JINHUI MS

CDG

PARIS

✈

ICN

SEOUL/INCHEON

항공편명	출발일	좌석번호
KE902	5월 16일	47C
탑승시간	출발시간	터미널
20:20	21:00	2E
탑승구	클래스	
L26 (공항에서 재 확인필요)	일반석	

Add to Apple Wallet

① 유의사항

KOREAN AIR

ECONOMY

탑승권

BOARDING PASS

NAME JEONG/KISEONG MR
FLIGHT KE 901 12MAY19 TO CDG PARIS
DEP TIME 13:20

BOARDING
탑승시간

12:50

GATE
탑승구

231

Please arrive at the boarding gate 40 minutes prior to departure.
(항공기 출발 40분 전에 탑승구에 도착하여 주십시오.)

NAME JEONG/KISEONG
FROM SEOUL/INCHEON
TO PARIS
DATE 12MAY19 Y

SEAT
좌석

32K

FLIGHT
편명

KE 901

WINDOW

114618402273

TOTAL/REMAIN 27809/ 5626M

KE 14TIMES 27809 MILES

181

181/Y/32K/ICN/W

180 3492950176C1

KOREAN AIR

ECONOMY

탑승권

BOARDING PASS

NAME JEONG/KISEONG MR
FLIGHT KE 902 14MAY19 TO ICN SEOUL
DEP TIME 21:00

BOARDING
탑승시간

20:20

GATE
탑승구

L30

Please arrive at the boarding gate 40 minutes prior to departure.
(항공기 출발 40분 전에 탑승구에 도착하여 주십시오.)

NAME JEONG/KISEONG
FROM PARIS
TO SEOUL/INCHEON
DATE 14MAY19 M

SEAT
좌석

34D

FLIGHT
편명

KE 902

AISLE

114618402273

245